



자주 의 불꽃
제 10 대 여학생회
새내기 배움터 기념

2400 여학우의

당찬의지 모아

자주의 기수로

우뚝 서겠습니다. !!!

책상위에

그 외 책상위에 가족 사진이 있다면 : 아! 참 편은직하고 책임감이 있는 가장이군!

그 너 외 책상위에 가족 사진이 있다면 : 총, 직장보다는 가정이 우선이란 말이야!

그 외 책상이 어지럽혀져 있다면 :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그랬을거야. 바쁘기도 하겠지.

그 너 외 책상이 어지럽혀져 있다면 : 참으로 산만한 여자군. 여자가 저래서 어디에 써먹을까.

그 가 동료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 요즘 추진중인 계약문제를 토의하고 있겠지.

그 너가 동료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 수다나 떨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그 가 자리를 비웠다면 : 회의 참석중일거야.

그 너가 자리를 비웠다면 : 또 화장고치러 갔을거야.

그 가 상사와 점심을 들고 있다면 : 축세하겠군.

그 너가 상사와 점심을 들고 있다면 : 깊은 관계를 맺은 게 틀림없을 거야.

그 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 한 줌 낯을거야.

그 너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 웅얼었을거야.

그 가 결론을 한다면 : 좀 더 안정되게 일을 잘하겠군.

그 너가 결론을 한다면 : 곧 그만 두겠군.

그 가 출장을 떠난다면 : 그의 경력에 보탬이 되겠지.

그 너가 출장을 떠난다면 : 가족들이 뭐냐고 할까?

그 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긴다면 : 좋은 기회를 잘 포착하는 안목이 있단 말이야!

그 너가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긴다면 : 여자는 도대체 뭐고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

학생회 그리고 여학생회

새내기들은 입학하면서부터 '이제 학생회의 주인은 여러분들입니다.'라는 소리와 함께 학생회 두리에 묶여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생회 주인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선배들을 따라 무작정 생활하다보면 불임성이 좋고 발랄한 성격의 아이들은 선배들과 함께 학생회라는 것을 먼저 친숙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아이들은 동아리나 학생회 밖에서 나름의 개별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학생회가 왜 필요한가'라는 의문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학년학생회부터 과학생회, 단대학생회, 총학생회 그리고 여학생회가 왜 필요할까요?

만약 '과학생회가 없다면'이라는 가정아래서 우리의 대학생활을 그려 봅시다. 먼저 우리의 대학에서의 생활적인 면들을 살펴보자.

우리 94 새내기들이 입학하기 전에는 동기들 얼굴과 이름을 익히고, 선배들도 만나고, 내가 속해있는 단대나 과에 대해 많이 알 수 있는 '새로 배움터'란 자리가 없겠조. 학생회 일꾼들이 신입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먼저 '신입생은 어떨까? 어떻게 하면 신입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먼저 '신입생은 어떨까? 어떻게 하면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하고, 새내기들과 선배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하니깐요. 그리고 입학을 하고 강의실을 듣고 하면서 공간 시간에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리고 동기, 선배들과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학생회실'이라는 것이 없겠조? 3월과 4월에는 같은 과 동기들이 모두 함께 모여 놀았으면, 서로에 대해 많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M.T(membership training)라는 것을 많이 가조. 하지만 이 또한 모든 과동기들이 다 갈 수는 없겠조. 먼저계획하는 사람이 없거나 선배들이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면 후배들 역시 당연하겠지. 그리고 5월에 있는 대동제도 없겠조? 그리고 마음껏 몸을 풀고 신나게 응원도 할 수 있는 체육대회도 없겠조? 우리는 대학에 들어온 이상 학문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학생회가 없다면, 전공공부가 힘들어 뜻이 통하는 친구들과 같이 공부해 보고 싶어 '전공학회'를 만들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전공서적 내지, 공부하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것들을 학교에 요구하고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없겠조? 그리고 '사회'를 들여다 보고 싶고, 문제의식을 가져보고 싶고, 대학생들이 왜 그렇게 데모를 하는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사회과학 학회'라는 것을 만들조. 하지만 이것 또한 학생회가 없다면 올바른 방향을 찾는대거나 능률적으로 꾸러나가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겠조. 우리 새내기들이 '품물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도 학생회가 없다면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힘들겠조.

그리고 학교에서 등록금을 근거도 없이 해마다 올릴 경우에 마냥 오르는 대로 등록금을 낼 수만은 없겠조. 학교를 상대로 정확한 근거를 대라고 하거나 등록금을 내리거나 동결할 것을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혼자서 그러한 싸움을 할 수는 없겠조. 그리고 쌀수입 개방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속에서 그러한 싸움을 할 수는 없겠조. 그리고 쌀수입 개방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생활속에서 '정말 쌀과 기초농산물 개방 만큼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나 혼자 힘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의 학생회는 대학생활을 보다 운터하게 만들 수 있는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새내기들이 스스로 대학생활의 주인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풍부한 지식을 체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학교측의 부당한 행동에 대하여 힘을 모아 투쟁할 수 있게 된다면 학생회의 주인은 몇몇 학생회 간부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홍익학원 모든 학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여학생회는 왜 있는 것일까요?

대학생이라는 지위로 생활을 해나가는 것과 동시에 여자들은 여학생이라는 지위를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다같은 대학생이면 대학생이지 '여학생'이라는 말이 굳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뒤에 여성문제의 기원, 남성, 여성의 차이 속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있어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지요.

기본적으로 여학생회가 없다면 교정 곳곳에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는 여학생들에게 안락한 여학생 휴게실을 제공할 수도 없고, 생활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성차별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풀어나갈 수도 없겠죠. '여성문제'라는 말을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궁금해 하는 학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높은 '여성학'이라는 과목의 개설 또한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재작년 미군에게 처참히 살해된 우리 민족의 딸 윤금이씨 공판투쟁에 그렇게 열심히 싸울 수도 없었겠죠. 여학생으로 대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남학생들과 결코 동등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4년 뒤 졸업에 즈음하여 반드시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취업문제속에서도, 결혼이라는 제도속에서, 가족제도 속에서도 여성들에게만 강요되는 모든 굴레들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이죠.



여성 그 존재의 문제

이렇게 여학생회 또한 과학생회, 단대학생회, 총학생회와 마찬가지로 '여학생'들의 필요에 의해 생겨났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찾아가고, 학교와 사회속에서 여성의 정당한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곳이다.

회랍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성에게 퍼부어진 갖가지 비난과 수식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시대마다 여성의 표면적 지위는 다르게 보일지라도 여성의 근본적 신분은 항상 그대로였기 때문에 그 신분이 여성의 성격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 성격은 이미 사회적으로 각본화되어 있다. 여자는 소극적이며 암전하고, 약해야 하며, 수치의 정확성이 없으며, 내숭이 많고, 이기적이어서 의리가 없고...

물론 이러한 비난속에는 옳은 것도 있다. 다만 이런식의 여성의 행위는 신체구조가 처음부터 다르며 그로 인하여 기질 자체가 다르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운명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여성이 살고 있는 상황과 입장에 의하여 길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즉 여성이 <살고 있는 상황, 사회적인 상황>에 의하여 길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원시공동체 시대에는, 한 집단의 여성과 남성은 모두가 서로서로 부부관계(잡혼, 대우혼이라 함)에 있었고 여성은 잦은 출산을 겪었는데 그것은 개인의 출산이 아니라 집단의 아이를 출산하는 경사스러운 일이었으며, 그 아이는 집단차원으로 길러졌다. 그 시절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잦은 출산과 양육때문에 주거지 주위에서 식량을 채집하게 되었으며 남성은 주로 나가서 사냥을 하게 되었다. 사냥을 나간다는 것이 맨몸이나 돌도끼 등을 사용함으로써 성공확률이 매우 적었으며 살아 돌아오기조차 힘들었었다. 그래서 여성의 채집활동이 공동체 존속에 커다란 기여를 했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끌어 가는 편이었다.

원시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먹고사는 것 외에 종족번식으로 공동체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 역시 중요했기에 여성의 출산은 중요한 생산활동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를 구별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었고 모계에 의해서만 구별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런 사회를 모계사회라고 부른다. 모권사회가 아니라 남녀가 함께 살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시기였던 것이다. 그 이후 생산수단이 변하고 생산력이 급증하여 남아도는 먹거리, 생산물 등이 생기게 되자 조금 많이 가진자와 덜 가진자가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 남는 것을 확실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일부일처제였고, 정착하고 가족이 생산활동에 이용되면서 그전 사냥등을 통해서 가족에 대한 사육권을 가져왔던 남성들이 점차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고 친자에게 상속이 되면서 가부장적인 생활양식이 제도화된 것이다. 그 이전 어머니의 재산이 자녀들에게 상속된 것이 이제는 아버지의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되었고, 그 상속이란 가축, 토지, 노예, 농기구 등 생산에 없어서는 안될 것이었고 이렇게 기존의 혈연중심의 가족의 기원을 살펴보자면 실재는 경제권 때문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재산을 상속할 적자를 생산하기 위해 여성은 정조를 강요당하고 남성은 여전히 성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역사가 비롯되었던 것이다.

우 리 시 대 의 여 성 성 남 성 성

여성과 남성은 생물학적 차이외에는 다르지 않다.

'여자가...', '사내 자식이...'

- 기회균등과 평등사회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여자다워지려고, 남성다워지려고 인간힘을 쓴다.

강한 르망 - 전 짜릿했어요 # 여자는 늘 변화를 원하잖아요, 맥심 모카골드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

남자는 향기에 약해요.

강한 힘 - 엑셀

위의 예문은 흔히 들을 수 있는 광고의 카피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이 문구에서 우리는 어느정도 규정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느낄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의 성격규정과 그에 따른 역할분담은 초등교육에서부터 시작하여, 각종매체의 홍수속에서 내면화하는 과정을 겪는다. 그리고 그러한 규정속에서 여성과 남성은 살고 있으며, 그 개인들은 사회속에서, 또 사회는 그런 개인들로 하여금 유지된다. 여기서 우리는 현 시대에 사회속에서 조장되는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의 내용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사회적인 역할분담을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며, 과연 올바른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남	여		남	여
부지런하다	3	1	정식하다	3	
참다(인내하다)	1		친절하다	2	
용감하다	6		작하다	2	4
힘세다	4		건강하다	2	1
열심히	7	1	땃땃하다	1	
어질다	1		책임감있다	2	
아름답다		1	의종다	2	
기특하다	1	2	노력하다	3	
똑똑하다	3		신중하다	2	1
너그럽다	1		활용하다	6	
꾸밈하다	2		자주적이다	1	
총성스럽다	4				

위의 도표는 초등교육에서 국어교과서의 등장인물을 수식한 형용사의 남녀비교를 나타낸다. 남성의 경우는 모든 부분에서 수식어가 사용되는 반면 여성에게는 '착하다', '암전하다', '기특하다' 등의 형용사로만 표현되어 있다. 즉 여아는 아름답고 보조적인 역할에 알맞게 - 여아가 섹섹하고 똑똑하면 아주 '드세다'라는 느낌과 연결된다. - 수동적인 '여성'으로 길들여지며(그가 거칠게 다룰 때 속으론 좋았다) 남아는 진취적이고 모든 상황에서 리드할 수 있어야 되는 '남성'으로 길들여지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더

구나 현대여성은 직업을 가진 캐리어우먼이 되어야 하는데, 암전하고 기특하고 착한 여성은 아름답기 위해서라도 프로가 되어야 하며(프로는 아름답다), 건강하고 정직하며, 어떻게 해서든 뛰어나야 될(깊고 풍부한 맛, 탁월한 향 - 임성민의 남성적인 이미지), 자기 의사 개진을 잘하고 남성은 그런 여성과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행복한 결혼과 함께 가정내에서의 역할분담, 사회적인 역할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주부는 가정의 연출자예요, 주부는 행복해요, 생활을 가꾸는 여자가 아름답다. -광고 카피 문구) 그리고 직업을 가진 여성일 경우, 가정살림과 아이 키우는 것과 함께 밖에서의 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게 된다. 그리고 가정에서 그러한 역할분담과 부모의 성격들은 다시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사회화'의 과정으로 작용한다. 그럼으로써 그 아이들은 그 사회의 구성 인자가 되는 것이다. 그 사회의 보편적으로 인식되어진 불평등하고 편협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은 그 개인들의 총체적 삶 속에서 법적, 정치적, 도덕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불평등하게 드러날 수 밖에 없다. 기회균등과 평등이 보장된다고 부르짖는 사회속에서 우리는 개인들에게 잘못 심어진 사회적 모순을 느낀다. 평등하게 되기 위해서 여성은 아름다운 수퍼우먼이 되어야 하고, 남성은 항상 경쟁속에서 지치게 되는,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기회균등한 사회, 여성과 남성은 아직도 동등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인교육, 전인화된 인간이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화 과정속에서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은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해야 한다. 그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한 시대의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시대에 알맞는 진정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물론 해답은 주어져 있지 않다. 오히려 '인간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모습일 것이다. 나에게 규정되어진 여성성, 남성성이란 부분, 그리고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큰 범위 안에서 제약한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문제제기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이상 우리는 이런 질문을 안이하게 넘겨버릴 수 없게 되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대에서 낡은 것은 예속이요, 독재요, 분단이며
새 것은 자주요, 민주요, 통일이다.

지는 해는 잠시 따가운 별을 보이나 곧 서산녀머로 사라지며
여명의 이슬과 바람 비록 차가우나 찬란한 해를 먹운다.

낡은 것이 소멸하고 새 것이 성장하는 것은
시대의 대세이자 사회역사발전의 법칙이다.

낡은 것은 때로 새 것을 가장하여 나타나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하나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 시대에서 낡은 것은 예속이요, 독재요, 분단이며
새 것은 자주요, 민주요, 통일이다.

지는 해는 잠시 따가운 별을 보이나 곧 서산녀머로 사라지며
여명의 이슬과 바람 비록 차가우나 찬란한 해를 띄운다.

낡은 것이 소멸하고 새 것이 성장하는 것은
시대의 대세이자 사회역사발전의 법칙이다.

낡은 것은 때로 새 것을 가장하여 나타나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하나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